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2025-2026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겨울호(제 42호)

e - 날씨
날씨 (you)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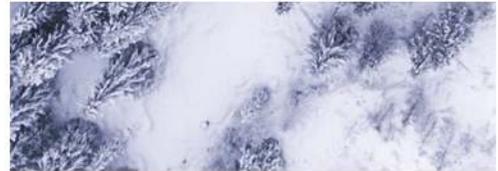
2025-2026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겨울호 (제 42호)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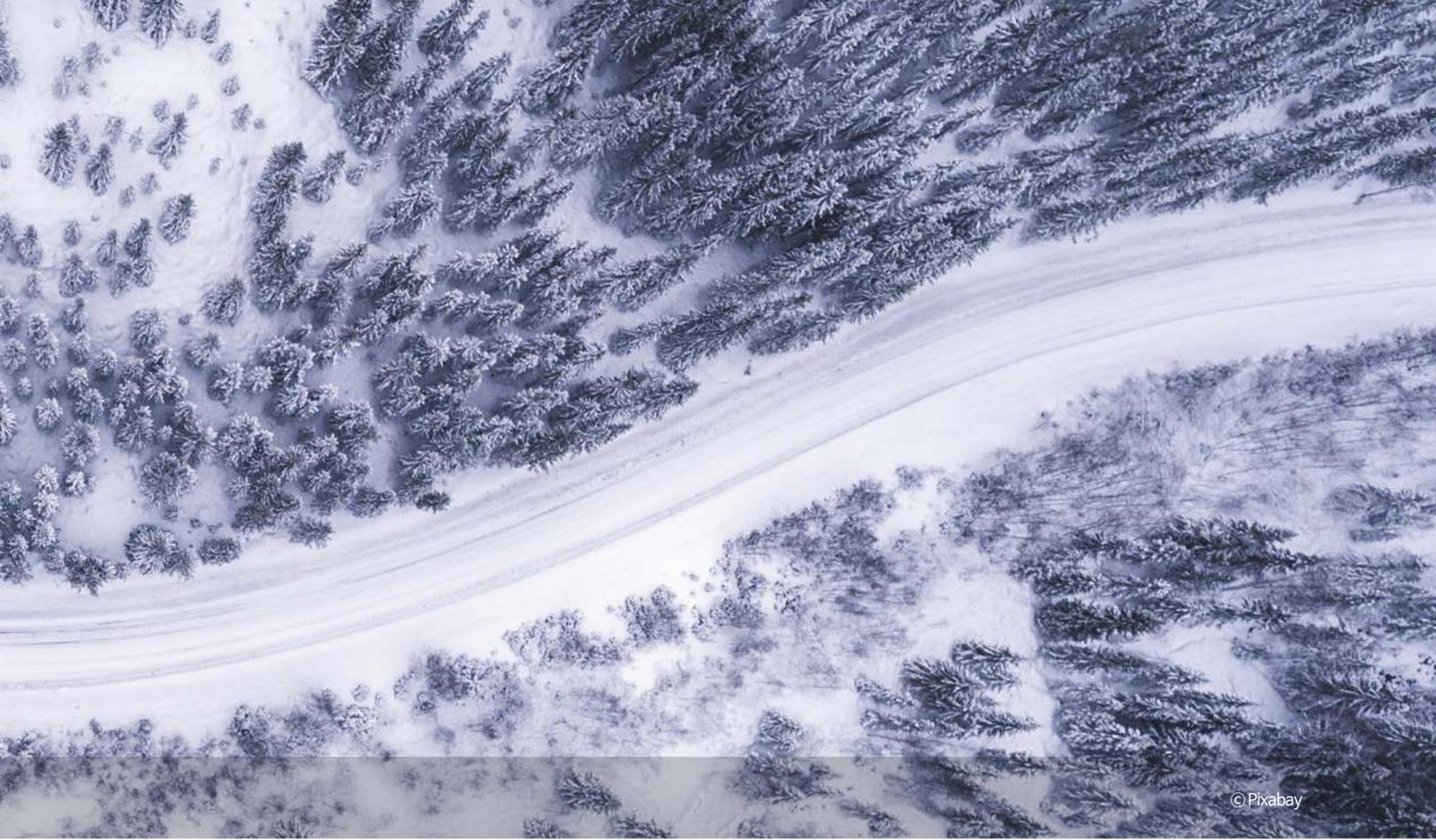
기상청장 기고

- 05 / 겨울에 피는 하얀 꽃, 그 이면의 위험
- 07 / 한파 영향예보와 함께 만드는 따뜻한 일상
- 09 / 봄철 산불, 한 걸음 앞선 대비가 필요하다



대전지방기상청 소식

- 11 / 2025년 1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2 / 2026년 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8 / 2026년 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2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 Pixabay



서비스

33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34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6년 2월 27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백은희(기획운영과), 이해정(기획운영과), 남미선(예보과), 정민음(관측과), 김지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연직(관측과), 김정수(기후서비스과), 김효원(관측과), 김호(예보과), 남민우(관측과)

박민규(관측과), 박현진(기후서비스과), 백승우(예보과), 심준수(관측과), 이정섭(관측과)

이혜정(기획운영과), 임나영(예보과), 임유진(기후서비스과), 최경연(예보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날씨유,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기상청장 기고문 겨울에 피는 하얀 꽃, 그 이면의 위험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다 같은 눈일까?

매혹적인 분홍빛 자태의 벚꽃이 봄의 전령사라면, 겨울을 상징하는 것은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는 눈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아름다운 풍경과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고, 마음 한편에 소중히 간직해 둔 아련한 추억을 꺼내 보게 해 줍니다. 그리고 눈이 녹아 지하수로 스며들면, 토양의 수분과 습도를 높이고 소중한 수자원으로 활용되어 겨울철 가뭄 해소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축늘어진 나뭇가지 위에 쌓인 눈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듯, 지나침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고 해야 할까요? 겨울철에 너무 많은 눈이 내리면 각종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다 같은 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의 종류에는 건설과 습설이 있고, 내리는 눈이 건설일지 습설일지는 기상학적 요소 중 기온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눈 입자를 확인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별 모양의 눈송이가 보이는 것은, 가볍고 건조한 눈인 '건설'입니다. 보통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사이의 낮은 기온에서 만들어집니다. '습설'은 물기를 많이 머금은 눈으로, 눈 결정이 수증기가 엉겨 붙어 뭉뚱해진 형태이며 영하 10도 이상에서 형성됩니다.

건설과 습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게와 밀도입니다. 보통은 건설보다 습설이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2~3배 무겁고, 건설은 빗자루로 쓸면 다 쓸려나가고 쉽게 흩어지는 반면 습설은 잘 뭉쳐지고 표면에 달라붙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이나 표면에 달라붙어서 그대로 다 남아 있거나, 녹아서 얼음 형태로 변형됩니다. 지붕이나 비닐하우스 위에 쌓인 습설은 제거하기도 쉽지 않으며, 눈이 쌓이는 면적이 큰 구조물이나 시설물 위에 많이 쌓이게 되면 구조물이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폭설이 내린 산간 지역은 교통두절과 정전 등으로 마을이 고립될 수 있으며, 인삼 재배 시설과 같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겨울 특유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 겨울철에 산행이나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산에 쌓인 눈은 탐방로를 미끄럽게 만들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눈 무게로 인해 텐트가 붕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위험을 안고 있는 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상청은 지난해부터 '눈 무게 예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거운 눈의 하중에 따른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보로, 눈 무게를 구름 내부 온도, 습도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눈, 보통 눈, 무거운 눈'의 3계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벼운 눈'은 수분 함량이 적고 평균보다 가벼운 눈, '보통 눈'은 평균적인 무게의 눈, '무거운 눈'은 수분이 많이 머금어 무겁고 시설물 붕괴의 위험이 높은 눈으로, '무거운 눈'이 예보된 날에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하얗게 수놓는 눈은 가볍게 흩어 지거나 빠르게 녹기도 하며, 무겁게 쌓여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눈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신의 기상예보와 정보를 확인하여 눈이 예상되는 시점과 강설량을 미리 파악하고, 눈 무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깊게 대비하지 않으면 대규모 피해가 초래될 수 있기에, 눈 무게 예보를 살피며 자주 눈을 치우고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모두가 피해 없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어느새 겨울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상점들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준비로 분주하고, 울려 퍼지는 캐럴과 반짝이는 조명들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저마다 새하얀 겨울 손님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기상청은 겨울철 위험기상 대비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겨울, 기상청의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정보와 국민들 개개인의 일상 속 대비가 함께하여, 모두가 피해 없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8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선 품성 내리던 북촌한옥마을 (황선영)

추위는 누군가에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

매서운 추위가 절정에 다다르는 1월이다.

뉴스에서는 연일 "오늘 아침은 영하 12도로, 울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와 같은 강추위 소식이 들려온다. 이러한 추위는 누군가에겐 잠시 옷깃을 여미게 할 뿐이지만, 야외에서 찬 바람을 맞으며 일하는 노동자,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 한파에 농작물이 얼어붙을까 노심초사하는 농민에게는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한다. 기상청이 우리 삶에 기상현상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예측하는 '영향예보'를 시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향예보란,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날씨에서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상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요령을 함께 제공하는 예보이다. 기상청은 현재 폭염과 한파 영향예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별 위험 수준과 구체적인 대응요령을 전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20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한파 영향예보는 기상 수치라는 '데이터'에 사회적 '취약성'을 결합한 서비스이다. 기존의 한파 예보가 최저기온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한파 영향예보는 분야별(보건, 산업, 시설물, 농·축산업, 수산양식, 기타(에너지 등))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위험 수준과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 요령을 담고 있다. 특히, 위험 수준을 신호등 체계로 시각화(**관심** - **주의** - **경고** - **위험**)해 제공함으로써, 위험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파 영향예보는 다음 날 보건(일반인) 분야 위험도가 '관심' 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오전 11시 30분에 발표되며, 기상청 날씨 누리와 날씨알리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의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약 400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고, 기습 한파가 잦았던 2022년과 2023년에는 저체온증 등에 의한 사망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또한, 2024년 기준 한랭질환자의 약 54.8%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었으며, 한랭질환 발생 장소는 길가가 2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이 18.3% 순이었다. 이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기상정보가 취약계층에게 적시에 도달하고, 그것이 실제 보호 조치로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이에 기상청은 보다 실질적으로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한파 영향예보 직접전달 서비스'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재녀나 보호자에게 한파 위험정보를 앱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보를 받은 재녀가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걸어 위험기상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인명 보호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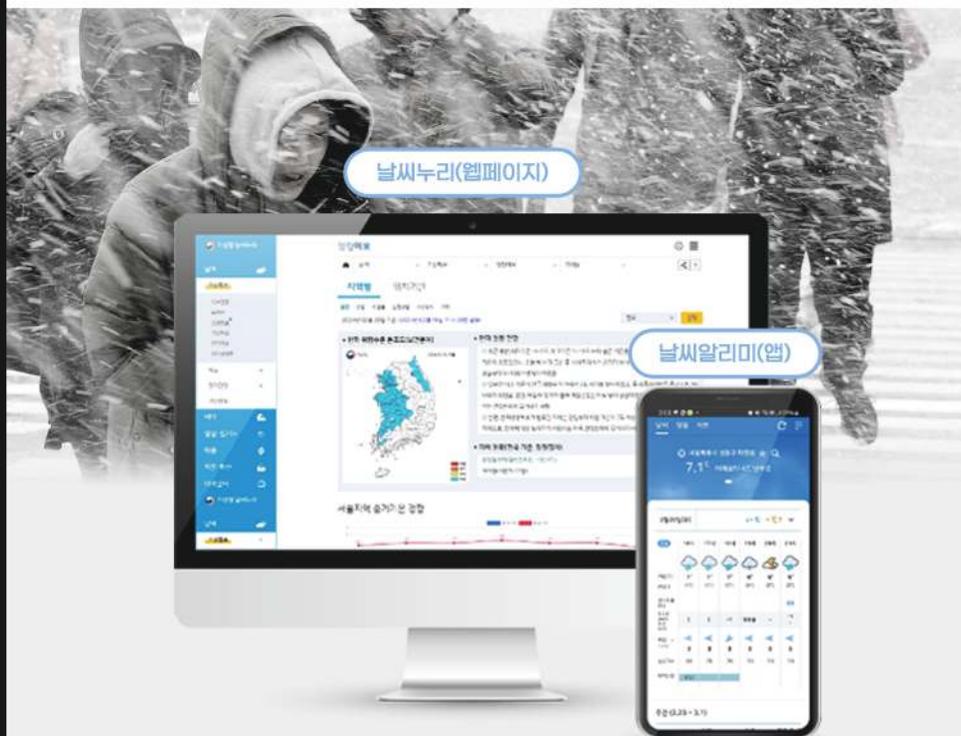
보건 분야의 한파 위험 수준이 '주의' 이상일 때 자동으로 발송되며, 관심지역을 설정하면 위험기상 상황에 따른 요약정보와 안부전화로 활용 가능한 구어체의 대응 요령도 제공된다. 지난해 시범운영 당시 이용자의 9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며 그 실효성이 입증됐고, 올해는 신청자 1,77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상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한파 영향예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와 지자체와의 협업 하에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을 활용한 음성 중심의 정보 등 소외계층을 위해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과 연구임대 아파트에는 재해 취약계층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전달 체계를 구축해 위험기상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모든 국민이 한파를 비롯한 위험기상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길 바라며...

새로운 다짐과 목표로 시작하는 1월, 우리사회가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전'이다. 기상청은 다양한 맞춤형 예보로 공동체를 지탱할 것이며, 여기에 주변의 안전을 살피는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질 때, 우리 사회는 안전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올 한해 모든 국민이 한파를 비롯한 위험기상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길 바라며, 기상청은 언제나 국민의 걸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봄철 산불, 한 걸음 앞선 대비가 필요하다

싱그러운 봄을 기다리는
동시에, 산불에 대한
경계심을 지녀야

칼바람이 몰아치던 한겨울의 끝자락을 지나며, 대지는 다시금 숨을 고르기 시작한다. 햇살은 한걸 부드러워지고, 거리에는 조금씩 봄기운이 스며든다. 온화한 공기 사이로 초록빛 새싹이 머리를 드러내면, 우리는 싱그러운 봄을 맞이할 생각에 마음이 들뜬다. 하지만 설렘과 동시에 지녀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산불에 대한 경계심이다.

지난 2025년 3월 경상북도 의성과 안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대기 속에서 빠르게 퍼져, 많은 산림을 불태우고 이재민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를 남겼다. 당시 산불이 확산한 배경 중 하나의 요인으로 봄철 특유의 대기 흐름을 들 수 있다. 봄이 오면 겨울 동안 맹위를 떨치던 시베리아고기압이 점차 쇠퇴하고, 점차 온난건조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나라는 맑은 날씨와 더불어 건조한 날이 이어진다. 대기가 안정되면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 작은 불씨도 쉽게 산불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남쪽에는 고기압 위치하고 북쪽에는 저기압이 통과하는 '남고북저형'의 기압배치에서 나타나는 강한 서풍이 고도가 높은 태백산맥을 넘어 더욱 고온건조해지는 성질의 국지적 강풍 현상은 봄철 산불 확산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작년 의성과 안동 산불은 봄철의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맞물릴 경우 산불이 얼마나 빠르게 대규모로 확산할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준 사례이다. 특히 이번 겨울은 유독 건조한 날이 이어졌기에 더더욱 봄철 산불에 유의해야 한다. 겨울철부터 이어진 강수 부족은 산림과 토양의 수분을 크게 낮추어 봄철로 접어들수록 산불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전국에 내린 비의 양은 역대 두 번째로 적은 4.3mm로 평년의 19.6%에 불과하며, 대전·세종·충남의 강수량 역시 평년 대비 16.7%인 3.8mm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의 평균 상대습도는 53%로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건조한 대기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봄에는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듯 산불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재해가 아닌 건조한 대기를 비롯해 복합적인 기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이기에, 산불 대응은 사전 예측과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기상청은 국민들에게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기상환경에 대해 그 위험을 사전에 미리 인식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 등의 기상특보를 발표함으로써 알리고 있다.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강풍주의보는 순간풍속이 초속 20미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될 때 발표 된다. 이 특보들은 단순한 기상정보가 아니라,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중요한 경고 신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매주 1개월 전망과 매월 3개월 전망을, 매년 2월부터 3개월 마다 계절기후 전망을 발표한다.

이는 전 지구적 기후 요인과 대기 순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리나라의 기온과 강수 경향을 전망한 것으로, 봄철 건조가 장기화할 가능성과 산불 위험이 커질 시기를 미리 가늠케 해 산불 예방과 선제 대응을 돕고 있다.

더불어 산불 발생 시에는 그 지역의 습도, 바람 변화 등 실시간 기상자료로 산불 진화 작업에 힘을 보태고, 이동형 기상관측장비와 기상관측 차량을 제공하여 현장 중심의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불진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상청은 앞으로 건조와 강풍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기후 특성을 더욱 면밀히 분석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다.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산불 예방을 위한 실천을 이어 나가야 한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세심하게 살피는 등의 작은 실천들이야말로 대형 산불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기상청의 기상정보에 관계기관의 사전대비, 국민 개개인의 실천이 더해진다면, 산불 없는 안전한 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Pixabay

2025.12.4.

「찾아오는 문화교실」 2차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직원들의 취미생활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찾아오는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문화교실 2차는 모루트리 만들기로 진행되었다.

초록색 모루를 4등분하여 둥글게 꼬아 원뿔형 스티로폼에 부착하고, 구슬과 리본 등을 이용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트리를 꾸몄다. 빛나는 트리 조명처럼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었기를 바란다.



2025.12.13.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노후 발전기 자동운전장치 교체



대전지방기상청은 서해상으로 유입되는 위험기상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지는 전력 생산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위치해 태양광 발전과 디젤 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만으로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자동운전장치를 교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한 지속적인 위험기상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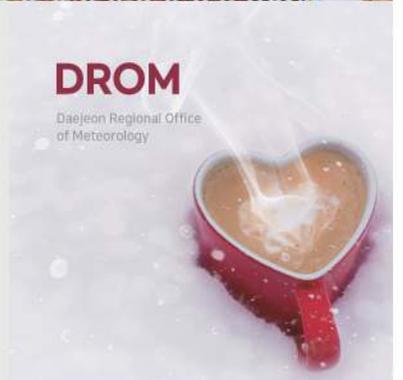


2025.12.17.

무인관측소 기상관측장비 안내판 및 운고운량계 펜스 교체



대전지방기상청은 무인관측소 내에 설치된 각종 기상관측장비의 안내판을 전면 교체하고, 운고운량계 주변 펜스를 새롭게 정비했다.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기존 안내판과 펜스를 철거하고, 내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신규 안내판과 펜스를 제작·설치하였다. 이번 교체를 통해 무인관측소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안내기능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6.

2025년 「대전지방기상청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업무성과 공유와 직원 간 소통을 통해 2026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성과공유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열렸으며, 총 29명의 직원이 참석해 부서별 업무성과를 보고하고 차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근대역사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항일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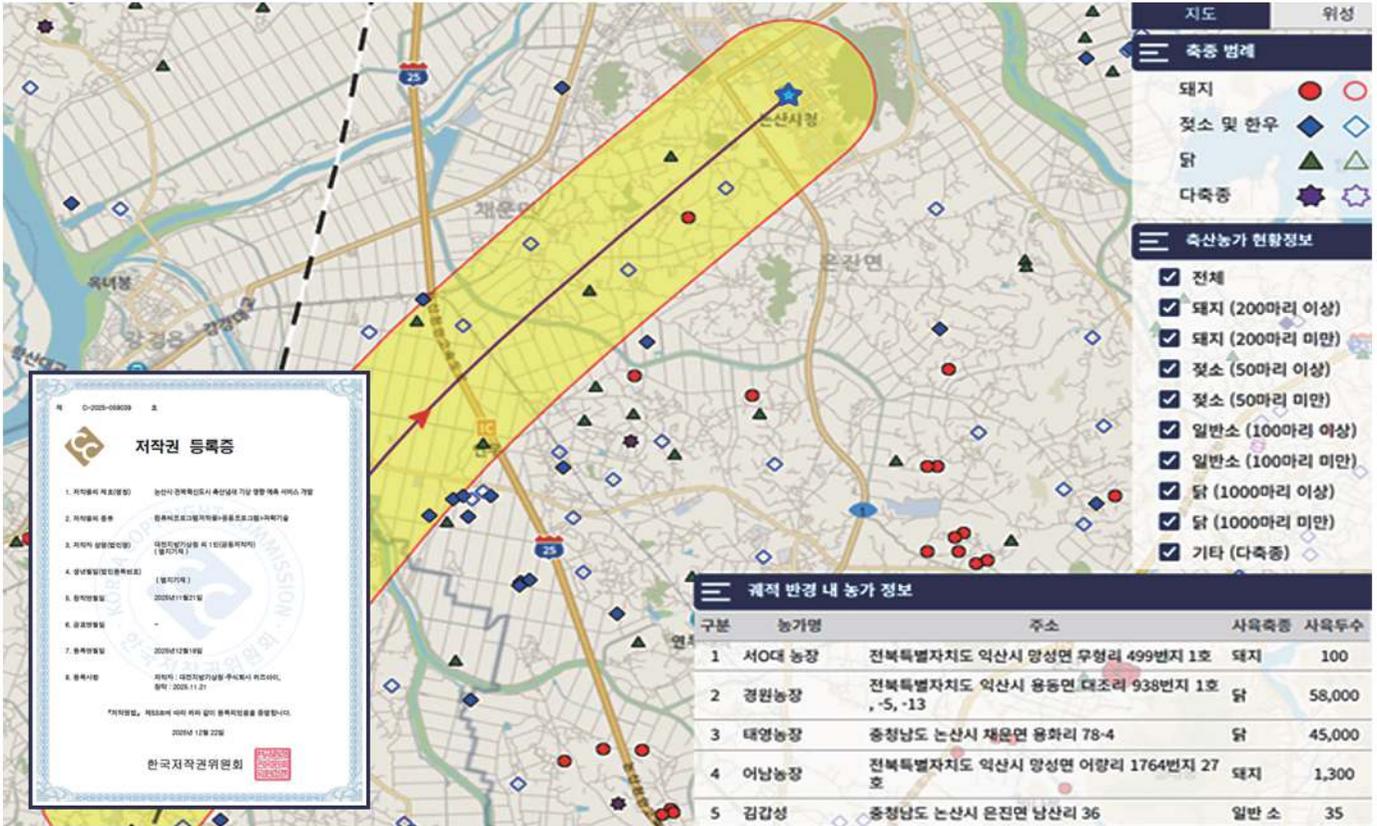




2025.12.19., 12.30.

대덕특구 관·학·연 협력, 기후변화 이해확산 확대로 장관상 및 구청장상 수상

대전지방기상청은 관·학·연 협력 기반의 기후변화 이해 증진 성과로 연구기관과 지자체로부터 연이어 수상하였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주니어닥터」 프로그램 참여기관 35곳 중 프로그램 참가율 및 만족도 1위를 기록하며, 2025년 「주니어닥터」 우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유성구청 주관 「꿈나무 과학멘토」에 참여하여 기후변화과학 교육 및 이해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2월 30일 과학문화협력 유공 유성구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앞으로도 미래 과학인재 육성 및 과학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5.12.22.

2025년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연구용역사업 산출물 저작권 및 국유지식재산 등록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11월 21일 「논산시·전북혁신도시 축산냄새 기상 영향 예측 서비스」 개발사업 종료에 따라 산출물(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 등록(12.22.)을 완료하였다. 본 서비스는 전주기상지청, 논산시 및 전북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기상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수요지역 일대의 축산악취 확산 및 그에 따른 민원 발생 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축산악취로부터 지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조성 및 축산악취에 대한 지역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한다.



2025.12.23.

예산AWS 관측환경개선을 위한 관측장소 이전

대전지방기상청은 건물 증축으로 인해 관측환경이 악화된 예산AWS(자동기상 관측장비)의 관측장소를 이전하여 관측환경을 개선하였다.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관측장소와 가까운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으로 이전할 수 있었으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전 작업을 통해 최적의 관측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번 작업을 통해 관측환경이 개선되어 예산군을 대표하는 기상관측자료의 신뢰도와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25.
국립충남기상과학관
크리스마스 특별 프로그램 및 이벤트 행사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연말 및 성탄절을 맞이하여 국립충남기상과학관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메리 웨더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하였다.

12월부터 1월까지 주요 장소를 포토존으로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12월 25일, 27일 양일 동안 ‘크리스마스 무드등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포토부스, 영화관을 운영하여 665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어린이 관람객에게 산타할아버지가 직접 선물을 증정하고 기념사진 촬영으로 행사의 즐거움을 더하였다. 이 행사는 기상과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향상시키고,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2025.12.30.

2025년 하반기 우수 기상관측자 선정 및 포상

대전지방기상청은 고품질 기상관측자료 생산과 관측현업 근무자의 사기 증진을 위해 우수 기상관측자를 선정하였다.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정확한 관측자료 생산 및 관측자료 품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기상관측자에게 대전지방기상청장상과 부상으로 상품권을 수여하였다. 이번 포상을 통해 기상관측자의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기상관측자료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22-27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2026년 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6.1.10.~1.11.

2025년 겨울철 위험기상 대응 기상관측차량 고층 특별관측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한 고층 특별관측을 실시했다. 이틀간 총 4회의 존데 비양을 통해 대설 등 겨울철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고층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했으며, 관측 공백을 보완하였다. 이번 관측은 겨울철 위험기상 예측과 특보 운영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1.12., 1.15.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소통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산시가족센터(12일)와 당진시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15일)를 방문하였다. 해당 시의 외국인 현황 및 소통 체계를 공유하고, 한파 영향예보 보건 및 산업 분야 다국어 리플릿을 배부하였으며 영향예보 및 기상정보 활용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후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상정보 활용 교육 등을 추진하여 기상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6.1.13.~1.29.

겨울철 한파 영향예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니어 날씨 씨앗 스쿨」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재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험 기상정보 및 영향예보 활용도를 제고하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원(청춘학교) 및 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기상정보 교육 프로그램인 「시니어 날씨 씨앗 스쿨」을 운영하였다.

이는 대전지방기상청이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기상기후교실 방식이며, 한파·대설, 폭염·호우 등 계절별 위험기상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취약계층이 기상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1.13.~1.22.

2026년 겨울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겨울방학을 맞이한 대전지역 초등학생들의 기상·기후과학 이해 증진과 흥미 향상을 위해 「26년 겨울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년별 교육 과정을 반영하여 풍력 하우스 만들기(1~2학년), 북극곰과 빙하 만들기(3~4학년), 압전기로 번개 만들기(5~6학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98명의 학생들이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하였으며, 강의-체험-관람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어린이들의 과학지식 함양에 기여하였다.







2026.1.20.~1.21.

「해양위험기상 발생 정보 직접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

대전지방기상청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돌발 위험기상(국지적 해무 등)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활동을 지원하고
 실효적 해양 위험기상정보를 어선(어민)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수협중앙회(태안·보령 어선안전 조업국)와
 해상방송시스템 활용에 대한 업무 협의를 실시하고 어선(어민)에게 해양위험기상(국지적 해무 등)
 발생 정보를 직접 전달·제공하는 「해양위험기상정보 직접 전달체계」를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6.2.3.

도로기상 및 노면정보 관측자료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노면 관측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2월 3일,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해호남고속도로지선의 노면 상태를 정밀 관측했다. 이번 관측은 차량 전방에 노면 센서를 부착하여 새벽부터 오전까지 편도 약 54km 구간을 2회 왕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수집된 상세 데이터는 겨울철 교통안전의 주범인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 예측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6.2.4.

홍성군 특보구역 세분화를 위한 업무협의

대전지방기상청은 홍성군의 효율적인 방재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특보구역을 2개 구역으로 분리하는 세분화 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홍성군의 특보구역은 기상·지형·사회·경제적 분석을 통해 동부(5개면)와 서부(6개 읍·면)로 구분하고 시험운영과 효과성 분석을 거친 후 6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2026.2.12.

2026년 설 명절 위문활동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설 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인 열매마을의 집을 방문하였다. 시설 아동들을 위한 성금과 위문품(쌀, 물티슈 등)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현장의 운영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활동을 지속하며, 공공서비스 실천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2026.2.26.

대전·세종·충남 기후변화과학 강사 소통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변화과학 학교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후변화과학 강사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5년에 개발한 교육지원 콘텐츠들을 소개하여 올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교육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대전지방기상청은 강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과학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기후위기 대응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극값 및 계절관측

1

JANUARY

1월 하순 일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 1.27. 세종 1위 9.1mm, 홍성 2위 6.7mm
- 1.28. 보령 2위 16.3mm, 세종 3위 5.7mm, 부여 4위 18.6mm, 홍성 5위 4.3mm
- 1.29. 홍성 4위 4.3mm

2

FEBRUARY

2월 상순 최대 순간풍속 최고 극값(순위) 경신

- 2. 3. 세종 1위 13.2m/s, 홍성 3위 11.5m/s
- 2. 4. 세종 3위 10.9m/s
- 2. 7. 홍성 1위 15.6m/s, 세종 2위 13.1m/s, 대전 2위 19.0m/s, 천안 4위 13.7m/s

2월 상순 최저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 2. 5. 홍성 3위 - 13.3℃, 세종 4위 - 10.5℃
- 2. 6. 세종 2위 - 11.3℃, 홍성 5위 - 12.9℃
- 2. 8. 세종 1위 - 11.6℃, 세종 5위 - 10.3℃

※ 2025년 12월 극값 경신 기록 없음

※ 홍성 :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17. 11. 01.)

※ 세종 :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20. 04. 01.)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전자문서(PDF)로
무료 발급 받으세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 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의 종류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6. 2. 현재)

1. ASOS(8소)

대전(133), 세종(239),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2. AWS(40소)

정림(378), 오월드(642), 세천(643), 장동(648), 세종고운(494), 세종금남(496), 세종연서(611) 세종전의(629), 북격렬비도(229), 송악(493), 호도(578), 대산(606), 근흥(607), 삼시도(609) 홍성죽도(610), 공주(612), 서천(614), 논산(615), 당진(616), 직산(617), 청양(618), 태안(627) 예산(628), 유구(632), 정안(633), 아산(634), 양화(635), 계룡(636), 신평(637), 연무(644) 서부(645), 춘장대(646), 대천항(657), 만리포(658), 계룡산(659), 안도(666), 옹도(667) 외연도(669), 정산(691), 원효봉(694)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Thank you for your affections and supports you have shown and contributed in the year of 2025.
I do wish we all the very best for 2026.



대전지방기상청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구성동 22)

대표전화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